

네이버 개발자 업무와 기술 플랫폼

연세대학교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
BK 산학세미나

발표자 : 정상혁

NAVER



| 네이버 개발자 업무와 기술 플랫폼

발표자 & 발표 내용

발표자 경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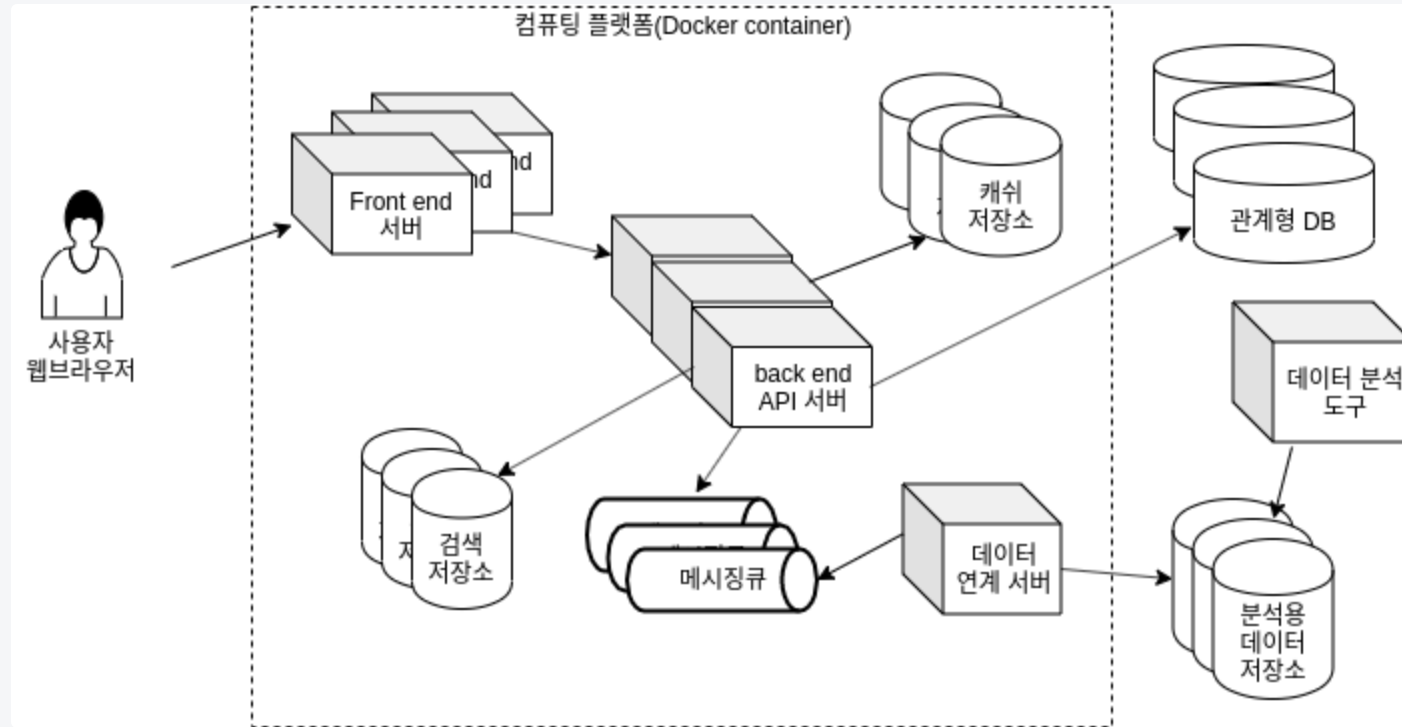
- 2008 - 현재 : 네이버
 - 주로 백엔드 서버 개발 담당
 - 여러 네이버 서비스(주소록, 미투데이, 네이버TV 등)의 프로젝트 참여
 - 현재 네이버페이 기술 구조 개선 프로젝트 진행 중. 개발조직 조직장
- 2004 - 2008 : 삼성SDS
 - 공공사업 S/W 엔지니어
 - 교육부, 행자부, 감사원 프로젝트 참여
- 1997 - 2004 :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재학
 - 경영학, 응용통계학 이중 전공

발표에서 다룰 주제

- 네이버의 백엔드 서버 개발자 직무 소개
- 네이버 공통 플랫폼 개발 업무 (Platform Labs) 소개
- 개발자 진로 선택 경험

백엔드 서버 개발

인터넷 서비스 구성의 예



'백엔드 개발'이란 어디까지인가?

- 모호하고 넓은 범위
- 어플리케이션(응용) 소프트웨어 개발과 기반 플랫폼 개발
 - 경계에 걸친 일도 있음
- 데이터 엔지니어도 '백엔드 개발자' 로 넓게 분류하기도
 - 참고 : 이것도 백엔드? - [손쉽게 ML 라이프사이클을 다룰 수 있는 MLOps](#)
- 사이언스보다는 엔지니어링에 가까운 일
 - 참고 : 백엔드 개발자와 협업하는 [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터뷰](#)

주로 쓰는 기술

- 언어 : Java/JavaScript/Kotlin/Go/C++/SQL
- 기반/부품이 되는 기술: 인프라스트럭처 기술/미들웨어/프레임워크
 - Linux, Docker, k8s
 - NGINX, Tomcat, Spring framework 등
- 데이터 저장소
 - 관계형 DB : MySQL이 가장 많이 쓰임
 - Key, value 저장소 : Redis, Memcached라는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한 제품들이 많이 쓰임
 - 검색/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저장소 : 대표적으로 Hadoop 생태계 기술

참고 자료

- [백엔드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개발자에게](#)
- <https://naver-career.gitbook.io/kr/service/platform-labs/next-npay> : 실무에서 어떤 기술을 쓰는지 참고할 만함
- <https://www.naver-recruit.com/> : 신입공채 안내 페이지

공통 기술 플랫폼

Platforms



Platform
Labs

Platform Labs

- 네이버의 서비스에 쓰이는 공통 플랫폼을 개발하는 조직
- 미션 : 네이버 서비스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기술 개발

공통 기술 플랫폼의 역할은?

- 아래 서비스의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될까?
 - 네이버 마이박스(구 N드라이브)에 올라간 파일
 - 네이버 메일
 - 네이버 블로그
- 수많은 서버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할까?
- 뉴스 속보로 갑자기 사용자가 몰리면 어떻게 대처할까?

- 네이버의 자체 공통 기술 플랫폼의 예
 - 분산 파일 시스템
 - 분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
 - 모니터링 도구
 - 로그 수집 도구
 -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(Docker container)
- 오픈소스 S/W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.

오픈소스 기여

Platform Labs에서는 유명 오픈소스 S/W를 깊이 파악하고 기여하는 역량을 중요시하고 있음.

- 오픈소스 재단인 Apache Foundation의 committer가 6명
- 유명 오픈소스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도 함
 - 예) Linux 커널, Spring data
- 풀타임 오픈소스 개발자 8명

- Platform Labs에서 개발해서 오픈소스로 공개된 소프트웨어
 - Pinpoint : 성능 모니터링 도구
 - nGrinder : 성능 측정 도구
 - nBase-ARC : 분산 메모리 저장소
 - Billboard.js : 차트 라이브러리

통계와 연관이 있는 업무

- A/B testing 플랫폼의 분석 모델
- AIOps : DevOps(개발+운영)의 AI 접목
 - 예: 현재 시스템의 상태가 장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모델 만들기

개발자 진로 선택

발표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...

이직

- SI업체(외주)에서 의미있는 사회경험을 했다고 느낌
- 네이버로 이직한 이유
 - 내가 쓰는 서비스를 내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
 - 개발자로 더 성장하고 기술역량이 더 인정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기대함

대학 시절 진로 고민

- 컴퓨터 관련 과목이 많은 것이 좋아 보여서 응용통계학 이중 전공 선택
- 4학년 때 군대 다녀옴
 - 남다르게 할 줄 아는 게 프로그래밍밖에 없어서 개발자 진로를 택함
 - 당시 비컴공 전공자도 많이 뽑는 삼성SDS로 지원

재미있게 들은 과목

전체 학점은 낮은데(3.04) 컴퓨터 관련 과목은 성적이 좋았음.

- 공대 개설 교양 과목인 C/C++/Java
- 데이터베이스 (서길수 교수님)
- 시스템 설계와 분석 (김진우 교수님)
- 회귀분석 (이학배 교수님)
- 컴퓨터 자료 처리 등 박상언 교수님 과목
 - S-Plus를 배웠는데 알고 보니 R과 친척
- 정보시스템 현장실습 : 홈페이지 만드는 웹에이전시에서 인턴 체험

국민학교 - 고등학교 때

- 프로그래밍이 꾸준한 취미
 - 국민학교 때 GW-BASIC으로 입문. 고1 때 C언어 독학
- 어쩌다 보니 문과 선택
 - 부모님의 권유 + 문과가 공부할 양이 적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감.
- 문과로 와서 보니 경영학과가 그나마 맞아 보임.
 - 다양한 세부 분야, 세부적인 진로 선택을 마음 편하게 유보할 수 있다는 느낌.
 - 이과에 가까운 과목도 많음.

정리

요약

- 네이버 백엔드 개발/공통 플랫폼 개발은 네이버 서비스를 지탱하는 기술을 담당함.
- 프로그래밍이 스스로도 재미있고, 적성에 맞다는 증거도 있다면 개발자는 할 만한 진로

덧붙임

개발/엔지니어링 역량/마음가짐은 어떤 직무를 하더라도 도움이 됨.

-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능력
- 버전 관리 개념, 협업 시스템 사용
 - Overleaf 요즘 많이 쓴다고 들었음
 - 예: 오늘 발표 자료는 <https://github.com/benelog/presentations/blob/main/20210914-yonsei-stats-bk/slides.md>
- 지식 공유 성향
- 새로운 도구를 찾고 익히기를 즐기는 성향

질문 & 답변
